

(각 항목 500자)

1. 가장 심혈을 기울여 목표를 성취한 경험이 있다면 구체적인 동기, 행동, 결과 등을 기술하여 주십시오.

2020Vision에 부합한 글로벌 인재

대학 시절 저의 목표는 무역, 물류, 구매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것 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3학년을 마치고 해외취업 프로그램에 참가했습니다. 미국 현지 대학에서 비즈니스 관련 전공을 수료하고 현지 경험을 쌓기 위해 여러 분야의 기업에 지원하였지만 부족한 현장 경험과 시민권을 가진 지원자들과의 경쟁 때문에 번번이 실패하였습니다. 하지만 끈질긴 도전 끝에 미국 마케팅 회사에 인턴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항상 적극적으로 모든 인턴 교육과 워크숍에 참석하고 보고서 작성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직원들과 소통을 통해 미국회사의 문화와 언어를 빠르게 배울 수 있었고 그 노력은 제가 무역회사에 입사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무역회사 경험을 통해 재고관리능력, 소통을 통한 세일즈능력, 외국문화적응력 등을 배웠습니다. 이러한 역량을 바탕으로 한전이 지향하는 2020Vision에 부합한 발전수주 사업의 전문가가 되고 싶습니다.

2.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나에게 예상되는 손해(피해)를 감수하고 일을 수행한 경험과 그에 따른 결과 및 느낌을 기술하여 주십시오.

개인기보다는 팀워크

대학교 3학년 때 학과 학술부장으로 학술제를 진행해야했었습니다. 학술제 준비는 보통 3개월 정도 준비해야 했기에 오후에 개인적인 공부시간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의 제안으로 학술부장을 맡아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기획했습니다. 특히 그 당시 유행하던 슈퍼스타K 라는 프로그램을 리메이크하여 음악, 코미디, 영어를 조화시켜 교수님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학술제를 준비하면서 매일 잦은 회의와 연습을 해야 해서 개인적인 자격증 공부와 학업공부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었지만 처음이자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어떻게 성공적으로 마무리 할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모두 저보다 후배들이었지만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매번 그들의 의견에 경청하고 조율하면서 문제점들을 보완했습니다. 그러한 노력을 통해 좋은 평가와 함께 학술제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고 좋은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경청과 협업능력을 갖춰야 함을 배웠습니다.

3. KEPCO에 지원하기 위해 귀하께서 특별히 준비한 것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소개

끈기와 꾸준함 만큼은 손기정 선수 같은 마라토너

저는 한전에 도전하기 위해 두 가지 노력을 병행해왔습니다.

첫째, 해외 취업을 위해 준비하고 성취하였습니다.

미국대학에서 비즈니스 전공을 수료하고, 미국 회사의 마케팅, 물류부서에서 일했습니다. 무역회사 시절, 외국인으로써 미국 직원들과의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항상 1등으로 회사에 출근해서 미리 해야 할 일들을 점검하고 새로운 것을 배울 때 마다 업무 노트를 기록하여 후임 직원 교육 당시 노트를 활용하여 상사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한 노력을 통해 저는 회사 측으로부터 취업비자 발급에 대한 동의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둘째, 한전의 국제화에 발맞추어 영어회화 공부에 집중했습니다.

귀국 후 10개월간 전남대학교 영어회화 스터디에서 리더로서 스터디를 진행했습니다. 매일 언론 매체에서 기사들을 요약, 교환, 발표 하면서 영어로 사회 여러 가지 이슈를 토론 하면서 소통방법과 국제적 감각에 대해 배웠습니다.

공채의 신으로 돌아온 대세, 인크루트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자료입니다. 자료의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

4. 대학에서 습득한 전공 또는 기타 지식을 연계, 활용하여 최근 한전이 직면하고 있는 현안과 문제를 개선 또는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기술하여 주십시오.

2020Vision을 향한 힘찬 도약

작년 전력대란으로 더위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존의 전력망에 IT를 접목한 스마트그리드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동조정 시스템으로 운영되므로 고장 요인을 사전에 감지하여 관련 전력망을 부분적으로 단절시켜 정전을 최소화 할 수 있고, 직류 송전이 가능해 가전제품의 전기효율을 향상시키고, 전기자동차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기반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전의 활발한 발전수주 사업으로 동남아시아, 중동, 중남미 등 세계 여러 나라에 발전소를 건설했습니다. 하지만 이들 발전소 중 7개는 6700여 품목의 설비부품들이 외국산인데 이를 국산화하면 현재 732품목 19어원에 그치던 국산화 규모가 향후 단계적으로 1000억 원으로 확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부채를 줄이면서 동시에 부품 국산화로 국내 중소기업들의 발전에도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어 한전의 기업 이미지 또한 올라갈 것입니다.

